

II.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위상

1. 강릉시의 일반현황 및 문화자원

강릉은 본래 예국의 도성이다. 고구려 미천왕 14년(313)에는 하서랑, 또는 하슬라로 기록되어있고 신라 진흥왕 11년(550)에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경덕왕 5년(757)에 명주로 개칭하고 도독부를 두어 9군 25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고려 태조 19년(936)에는 동원경으로 개칭, 임영관을 건립하였다. 공양왕 1년(1389) 대도호부로 승격된 후 조선조에도 그 지위를 이어갔고, 태조 4년(1395) 강릉도와 교주도가 통합될 때에는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을 취하여 강원도로 도명을 정하였다.

강릉은 동해안을 따라 울진에서 고성에 이르는 영동지역의 행정적 중심지였다. 1895년에는 강릉에 경찰부가 설치되어 울진, 평해, 삼척, 고성, 양양 등 9개 군을 관할하였다. 1955년 강릉시가 되면서 명주군이 분리해나갔다가 1995년 다시 명주군이 강릉시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른다.

지금도 삼척이나 양양 등 영동지역에서 서울로 가려면 강릉을 경유, 대관령을 넘어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역사적으로 강릉은 대관령을 통해 중앙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영동지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가려면 일단 강릉으로 와서 대관령을 넘어 가는 것이 상례였다. 때문에 강릉은 서울과 영동지역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큰 시장이 발달하였다. 또한 향교를 중심으로 유학도 활발하여 편벽된 영동지역에서 중앙으로 나가는 유생을 많이 배출하였다.

강릉은 1999년 12월 현재 23만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도시이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퍼센트 이상이고 동해에 면해있어 수산업도 활발한 편이다. 또한 인근에 있는 소금강과 동해바다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일찍이 강릉을 관광도시로 각광받게 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경포대와 오죽헌, 선교장은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다. 뿐만 아니라 강릉은 2개의 종합대학교와 1개의 대학이 있어 1만 7천여 명이 재학중인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다만 산업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소규모 제조업체와 중소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기는 하나 산

업도시의 성격은 약하고 행정기관과 교육, 관광이 중심이 되는 소비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강릉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유무형 문화재가 23개이고 도지정 문화재 역시 49개이다. 국보 제 51호로 지정되어있는 객사문은 고려말의 건축물로서, 문에 걸려있는 제액글씨 ‘임영관(臨瀛館)’은 공민왕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다. 그외에도 15개의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데 한송사지 석불좌상, 굴산사 당간지주, 신복사지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지만 율곡선생이 태어난 오죽헌과 선생이 직접 쓴 격몽유결, 문묘대성전 등 유학의 유물도 적지않아 풍부한 문화전통이 있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3호인 강릉단오제는 주지하는 바 같이 제의와 각종 민속놀이, 질편한 난장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이다.

한편 강릉농악은 집단놀이성이 강하고 다양한 진풀이와 모의농사놀이가 특징이다.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면서, 즈상날 별을 보면서 풍년을 기원할 때도 농악을 쳤고 집집이, 또는 이웃마을에 걸립을 다니면서도 농악을 올렸다. 힘든 농사일의 피로도 농악으로 풀어 7월 백중날이면 질먹으면서 농악을 했다. 이렇게 강릉농악은 생활속의 놀이문화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내용을 보면 특히 봄에 소를 몰면서 논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김매기, 타작, 그리고 수확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모의농경을 하는 농식이 강릉농악을 비롯한 영동농악의 재미로 전승되고 있다.

강릉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문화도 풍요로운 곳이다. 굴산사를 비롯한 신복사, 보현사, 한송사는 뿌리깊은 불교문화가 전승되는 지역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율곡과 같은 대 학자를 배출한 바 유학의 전통도 만만치 않다. 설사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해도 강원도 영동권에서는 드물게 논이 많아 안정적인 토호 양반계층이 발달, 수준 높은 유교문화를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민요, 탈놀이, 농악 등 민속문화도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는 상층계층과 피지배계층 문화가 공존해온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강릉은 전통과 문화의 도시로서 오늘도 그 맥을 잇고 있다.

2. 강릉단오제의 역사

강릉단오제의 연원은 동예의 무천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무천은 10월에 하던 제천의식이다. 하지만 강릉단오제를 제천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별히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대축제에 나오는 주된 내용인 주야로 남녀가 음주가무했다는 기록과 오늘날 단오제의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아 둘 다 공동체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천은 10월에 행했고 현재 강릉단오제는 5월에 하고 있으니 시기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선가 축제의 시기가 바뀐 것이다.

단오는 중국에서 들어온 세시풍속이지만 원래 강릉에 있었던 풍농기원 축제와 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월에 거행된 무천이 추수감사제의 성격이라면 단오제는 농사일을 앞두고 행하는 예축행사다. 단오가 끝나면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단오제때 토룡을 만들어서 기우제를 지낸 적도 있어 풍농을 기원하는 성격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강릉단오제와 관련시킬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보는 단오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시기는 17세기 초 허균의 『성소복부고(惺所覆瓿藁)』에서 시작된다. 『성소복부고』의 기록에 의하면 허균은 선조 36년인 1603년 5월 1일 강릉에서 대관령의 산신(大嶺神)을 맞이하는 행사를 보았다. 허균은 수리에게 그 연유를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대령신은 곧 김유신으로 공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하였는데 산신이 검술을 가르쳐주었고 또 선지사에서 명점을 주조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였다. 죽어서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는데 지금도 신령스런 이적이 있어 고을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번개와 향화를 갖추어 대령에서 맞아다가 명주부사(溟洲府使)에 모신다고 하였다. 특히 신이 기뻐하면 하루 종일 개(蓋)가 쓰러지지 않아 풍년이 들고 신이 화를 내면 개(蓋)가 쓰러져 풍수의 천재지변을 준다고 믿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강릉단오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첫째, 당시 제의 대상 신격이 대관령 산신으로 좌정한 김유신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오늘날 모시고 있는 국사성황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후대 어느 시

점에서인가 제의 대상 신격이 바뀌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대관령에서 모셔 온 신을 부사에 모셨다는 사실과 허균이 그 내용을 수리에게 물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속이 진행한 관주도의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학자 아끼바 다카치는 강릉단오제를 관행의 읍락제라고 표현했다.²⁾ 이규대 역시 조선조에 행해진 강릉단오제는 전국에서 행해지던 읍치성황제의 하나라고 보았다.³⁾ 셋째, 신이 즐거우면 풍년이 들고 노하면 풍수의 천재지변을 준다는 것, 그 영험함을 신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번개를 들어보는 것으로 점치는 내용이 있어 관민이 함께 고을의 안과태평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관에서 주재했으니 제사의 틀은 유교식이었을 것이나 실질적인 내용은 축제의 성격을 띠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번개는 오늘날 화개라고 부르는데 일명 팻대라고도 한다. 일제시대 때까지도 단오행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화개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장관이었다는 임동권의 인터뷰 자료가 남아 있다. 화개는 일제시대 기록에 의존하여 만들었으나 사람들이 다투어 메어보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지금은 그 행사가 전승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단오제 영신행차때 신목 뒤에 모시고 따른다.

그 후의 기록은 강릉의 향토지 『임영지(臨瀛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임영지』는 영조 때 출간되었다. 그리고 1933년에 『증수 임영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강릉단오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릉에는 성황사에 제사를 올리는 이외에 별다른 풍속이 있었는데 매년 4월 보름에 강릉부에서 임명된 戶長이 남자와 여자 무당을 인솔하고 대관령 정상에 있는 신령을 모신 사당으로 가서 호장이 먼저 사당앞에 나가 고유하고, 남자와 여자무당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나무 가운데서 신이 내린 나무를 찾아 모시고 오라 시키면 갑자기 나무 하나가 미친 바람이 불고 지나간 듯이 나뭇잎이 저절로 흔들리면 마침내 신령이 그 나무에 내린 것으로 알고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 건장한 장정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고는 이를 國師라 하였다. 이를 받들고 행차를 할 때에는 뿔로 만든 아름다운 피리를 불며 앞에서 인도하고 남녀 무당들은 징을 울리고 북을 치면서 이를 따른다. 호장은 대창역의 말을 타고 뒤에서 천천히 가면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연도에 늘어선 인

2) 아끼바 다카시(秋葉隆)(1953), 『朝鮮民俗誌』, 심우성(역)(서울:동문선,1993), 193쪽.

3) 이규대(1998), “강릉국사성황제와 향촌사회의 변화” 『역사민속학』, 제 7집(한국역사민속학회), 109-111쪽.

파가 마치 담장을 길게 쌓은 것 같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종이와 천을 찢어서 신목에가 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무당들을 위로하였다. 어두워질 무렵 관아에 도착하면 뜰에 세워놓은 횃불이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이어 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성껏 맞이하여 성황사에 안치하였다가 5월 5일에 무당들이 울긋불긋한 비단 자락을 모아 고기비늘 모양으로 여러 폭을 이어 알록달록하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긴 장대에다 거니 마치 큰 우산을 펼친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드리운 비단 자락에 제각기 이름을 쓰고 화개처럼 만들어 힘센 장정들이 이를 받들고 앞장서면 무당들은 풍악을 울리며 그 뒤를 따르고, 창우배들은 온갖 잡희를 하며 행진하였다. 이렇게 종일 놀다가 마지막에 성 남쪽 문으로 나가 소학천에 이르러 해산하였고 대관령에서부터 받들고 온 신목은 이튿날 성황사에서 태웠다. 이러한 행사는 옛부터 내려오는 습관들이 생활화된 이곳 고을의 풍속으로서 그 유래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러한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 비바람에 곡식이 못쓰게 되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매년 4월 15일에 호장이 무당을 거느리고 대관령에 올라 신목을 통해 국사신(國師神)을 모셔 성황사에 안치한다고 하였다. 5월 1일부터 무당들이 풍악을 울리고 창우배들이 잡희를 하며 놀이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곡식에 피해를 주고 금수의 피해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임영지』의 내용은 허균의 기록과 대동소이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제의를 받는 신격이 대관령 산신에서 국사성황신으로 바뀐다. 신목을 국사라 하였고 성황사에 안치하였으니 이른바 국사성황신인 것이다.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한 국사성황신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871년 신라 경문왕으로부터 국사로 초빙을 받았던 승려 범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국사성황으로 범일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⁴⁾ 『임영지』에는 성황사에서 모신 11개의 신위가 적혀있다. 성황각위, 성황지신, 송악지신, 태백대천왕신, 남산당제형태상지신, 성황당덕자모왕지신, 신라김유신지신, 강문개성부인지신, 감악산대왕지신, 신당성황지신, 신라장군지신, 초당리부인지신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국사성황도, 범일국사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그 후에 등장한 신격으로 보는 것이다. 범일이 기록에

4) 이에 관해 이규대는 숙종 7년(1681) 미타계의 결성을 계기로 범일이 국사성황으로 발현되었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규대(1998) 논문참조.

등장한 것은 1928년 아끼바 다카시에 의해서이다.⁵⁾ 하지만 그는 범일을 국사서낭이라고 지명하지는 않았다. 국사를 범일이라고 지목하여 기록한 시기는 좀 더 늦어서 1937년의 일이다.⁶⁾

그러나 국사성황의 국사를 범일이라는 특정인물과 관련시키지 않는 해석도 있다. 이는 국사라는 명칭이 다른 지역에서 높은 산정에 위치한 국사당 신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⁷⁾ 국사당, 국수당, 또는 국시당 등으로 불리우는 이 신당은 천신의 강림처의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⁸⁾ 대관령이 높은 산인만큼 본래 대관령에 국사당이 있었는데 후대에 성황신앙이 결합되어 국사성황이란 명칭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의가 무게를 갖기 위해서는 천신신앙, 산신신앙, 성황신앙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전제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 신을 모시는 대표자이자 단오제를 주관한 인물로 호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허균역시 이속의 존재를 언급했지만 호장은 단순한 이속이라기 보다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호장은 조선조에 와서 중앙집권제가 강화되어 세력이 약화되고 신분도 중인으로 떨어졌으나, 향리직의 우두머리로서 고을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와 달리 세습되는 신분인 호장은 누대를 그 고을에 사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관을 대표하여 단오제때 신을 모시러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대표로서의 호장의 성격은 외부세계와 갈등을 빚다가 죽음을 당한 뒤 결국 신으로 좌정한 이야기로 남아 있다. 경남 창녕군 영산에서는 단오때 문호장굿을 했다. 문호장은 마을에 찾아온 관찰사 말에 도술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죄로 관찰사로부터 죽음을 당한 뒤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외지인이 마을을 지나가거나 찾아왔을 때 그 마을에 대한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마을 입구에서 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설화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흔하게 발견된다. 영산의 경우 문호장이 관찰사가 타고 있는 말에 도술을 걸었다는 것은 관찰사가

5) 아끼바(1953), 199-200쪽.

6) 김선평(1987), 『강릉단오굿』(서울: 열화당), 111쪽에서 무라야마(村山智順)가 1937년에 쓴 “부락제” 가운데 범일국사를 처음 성황신으로 지목했다고 함.

7) 이런 의견을 처음 낸 사람은 장정룡교수이다.

8)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편)(1991), 『한국민속대사전』 제 1권, 국사당, 국사성황당편.

마땅히 해야 할 마을에의 예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이다. 이는 문호장이 영산출신임에 반해 관찰사는 외지사람으로 문호장이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로서 죽음을 당한 문호장은 외부의 힘에 저항하려는 민중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상징으로 신앙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강릉단오제에도 이와 유사한 설화가 전한다. 대관령 국사성황사 앞에는 하마비가 있어 누구든지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했다고 전한다. 『중수임영지』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다.

영조 임오년(1762) 금부서리 이 규가 삼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관아에 왔다. 아전의 우두머리를 문책하려 했으나 마침 5월 5일 단오이어서 호장 최광진은 국사서낭을 보내기 위해 성황사의 일을 보다가 늦게 도착하였다. 성미 급한 이 규는 호장을 결박한 뒤 성황신만 중히 여기고 나를 천박하게 대한다고 난타하였다. 그 후 이 규는 사지가 뒤틀리면서 곧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는 지역의 수호신을 모시는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보여주는 예화이다. 설사 중앙에서 파견된 높은 관리라 하더라도 수호신에게 적절한 예를 갖추지 못했을 때 신의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역민의 긍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종인계층인 호장역시 지역의 지배층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게 해주는 설화인 것이다. 종인계층들은 비록 양반보다 하위신분이었지만 강릉단오제를 주관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호장을 중심으로 한 종인계층이 중앙에서 파견된 외부세력으로부터 적절히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독자적인 지역문화를 유지해온 틀이 되었다고 하겠다.

셋째로 무당이 제의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기록에 의하면 남녀 무당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강릉은 세습무권에 속한다. 세습무들은 여자인 무당이 굿을 하고 남자인 창우배는 음악을 연주하고 기타 잡희를 행한다. 이 기록은 무당패가 신목을 벨 때부터 국사신을 모시고 내려오는 의식, 그리고 단오제를 하는 내내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릉단오제가 이속이 관장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읍치성황제가 무속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은 단순히 강릉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다. 순창지역의 성황사 경우 명종 18년(1563)에 군수에 의해 대대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유는 당시 무격들이 제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음사를 폐하고 좌도의 어지러움을 바르게 하기”위해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순창은 후대까지 행사에서 무격을 제외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 후 백년이 지난 1740년에 성황사의 재구조화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전 호장 임계욱이 무격들에게서 재물을 모아 건물 수리를 주동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순창의 성황제에 여전히 무격들의 참여가 활발했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¹⁰⁾ 따라서 이속들이 주관한 읍치 성황제는 유교적 이념을 표방했으며 무속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고 강릉단오제의 경우 오늘날까지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로 창우배가 잡회를 했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창우배란 세습무가의 남성들을 말한다. 이들은 화랭이, 또는 양중, 사니등으로도 불리었는데 평소에는 아내나 어머니인 무당이 굿을 할 때 음악을 연주하거나 거리굿 같은 잡회를 한다. 그러나 창우배가 관에 속해있으면서 악공의 노릇도 했던 것은 전국에서 같은 양상이다. 임종국은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 “주읍의 무당은 소위 안무당이라는 관선의 무당들이다. 주읍의 성황당이며 관부의 부를 지니고 당군으로 관제에 참가했는데 그 남편들은 관노의 자격으로 장악원의 소속이다. 이들은 관청의 의식에는 음악을, 아내의 무업에는 무악을 연주하면서 주읍에 대제가 있으면 탈춤, 광대놀이에도 종사하였다.”는 것이다.¹¹⁾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지적은 강릉단오제에서 가면회를 했던 관노가 곧 세습무당의 남편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창우들의 잡회는 곧 관노가면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이보형은 무격출신이 많은 악수청 악공들이 관노가면극의 반주를 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쳤다.¹²⁾ 악사와 놀이패를 구분하여 창우들은 주로 악기를 담당했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창우들은 지금도 굿판에서 악기연주와 잡회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때 창우배가 잡

9) 이기태(1999), “성황사와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조선 중 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 8집(한국역사민속학회), 85-86쪽.

10) 앞글, 92쪽.

11) 임종국(1980) 『한국사회풍속야사』 (서울:서문당), 249쪽, 장정룡(1989), 『강릉관노가면극연구』 (서울:집문당), 50쪽에서 재인용.

12) 장정룡(1989), 51쪽.

회를 했다는 기록의 내용이 관노가면극과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이 행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녕과 풍농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중 금수의 피해를 막는다는 것은 여서낭신으로 믿는 정씨 처녀가 호환을 당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원래 강릉은 과거 동예의 땅으로 호랑이를 신앙했다는 기록이 있다.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의 형태를 띌 수 있는데 이는 최근도 호식장이라든가 삼척 갈남의 서낭이 백호라고 믿는 것등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강릉단오제에서는 호환에 죽은 여인이 여국사성황신으로 좌정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무속의 심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무속에서는 한많은 영혼을 가장 두려워하여 한을 풀어주는 곳을 한다. 그러나 그 한이 아주 깊으면 원혼의 영향력이 집안을 넘어 마을전체로 퍼져 집단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15세에 죽은 김씨 여인이라는 하회별신굿의 서낭신이나 풍랑에 죽은 처녀인 안인의 해랑신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정씨여인 역시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원혼이 집안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 신으로 좌정한 예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정씨가 특별히 호환을 당한 존재라는 것은 지역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강릉지역에 있던 호랑이 숭배사상과 무속적 신앙이 결합한 결과인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 강릉단오제는 더 이상 관에서 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¹³⁾ 하지만 강릉단오제의 전통은 당분간 그대로 전승되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심일수의 문집 『豚湖遺稿』에 의하면 1909년 융희 3년에 단오제는 일제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중단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그 즈음부터 관노가면극의 전승이 끊기는 등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1928년 아끼바는 갑오혁신 이래 관에서 행한 큰 마을축제의 전통이 끊겼으나 아직 장이 서고 한 구석에서 무당이 굿을 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구한말과 일제 때에도 반드시 관청에서 단오제를 거행할 무당을 선정하였고 관청의 허락이 없이는 대관령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는¹⁴⁾ 보고가 있어 갑오경장 이후에도 어느 정도 관에서 행사에 개입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의 관의 개입은 과거와 같이 관민이 합동하여 행사를 했다고 보다는 오히려 관이 간섭하여 민족문화를

13) 아끼바(1953), 194쪽.

14) 최철(1972), 128쪽.

말살하려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관에서는 행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조선조 때에도 비용을 관에서 부담했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쌀과 누룩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아 행사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무당들에게 사람들이 다투어 돈을 냈고 또 한 다른 무당들 역시 행사를 맡은 무당에게 돈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¹⁵⁾ 하지만 일제시대부터 단오제의 비용을 내는 담당자는 상인으로 바뀌었다.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 무당패들을 불러다가 대관령을 오고가면서 사고가 나지 않고 장사 잘되게 해달라고 제의를 올렸다는 것이다. 또는 무당들이 상인을 찾아다니면서 걸립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해방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되었다고 한다.¹⁶⁾ 하지만 조선조때에도 무격패들은 시장에서 굿판을 벌였다. 즉 당시부터 상인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이다. 그후 관이 손을 떼면서 단오제는 민간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단오제에 돈을 대던 상인이 그 역할을 떠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성황사가 폐사되고 행사의 장소 역시 장터로 바뀌게 되었다.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강릉단오제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하지만 강릉단오제는 여전히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었지만 강릉단오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모시고 무당 불러 굿을 했다. 그렇게 내려오던 것이 처음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강릉단오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시기다.

1967년 강릉단오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분야는 제례, 관노가면극, 무당굿등 3개 분야였는데 이 셋은 오늘날까지 강릉단오제의 핵심으로 전승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노가면극은 이미 전승이 끊어진 상태였으나 생존해있던 연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원했다. 이는 그 당시 전승되던 상태대로가 아니라 지정대상을 중심으로 강릉단오제의 내용이 새롭게 재편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강릉단오제의 면모가 바뀐 것이다.

15) 아끼바(1953), 198쪽.

16) 신석남 인터뷰자료, 1992년 강릉단오제 기간.

문화재로 지정된 후 처음 강릉단오제는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주최하고 강릉시가 주관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비용은 상인들이 부담했다. 강릉시는 단오 행사 주관을 몹시 싫어했는데 이유는 공무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내라고 말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70년 보고에 의하면 총소요경비 1백만원중 강릉시는 1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만원이 찬조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¹⁷⁾

1973년 강릉단오제는 시에서 이관되어 강릉문화원이 실무를 맡게 되었다.¹⁸⁾ 이 시기는 정부에서 제 1차 문예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심부로서 문화원에 대폭 역할을 맡긴 때와 일치한다.¹⁹⁾ 중앙정책에 의해 주관처가 바뀐 것이지만 하여튼 이를 계기로 강릉단오제는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된 것이다. 행사비용도 상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망이 총동원되어 추렴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계기로 강릉단오제는 점차 일부 상인들의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행사에서 지역사회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1979년부터 행사를 지정문화재행사, 민속행사, 경축행사로 나누었다. 지정문화재 행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고 민속행사에는 민요경창대회, 농악경연, 궁도대회, 씨름대회, 시조경창대회, 그네대회 등이 들어있다. 경축행사는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가요잔치, 강릉단오사진전등이 포함되었다.

신주근양 날짜가 음력 3월 20일에서 4월 5일로 바뀐 것은 단오제백서 기록에는 없으나 1989년 무렵이다. 이로서 전체 강릉단오제 행사기간은 보름이 줄어들었으나 단오 행사는 해마다 늘어났다. 1991년에 와서 체육행사가 경축행사에서 분리되었고 1992년에는 강원도 문화재인 토속요발표회가 새로 생겼으며 대관령 푸너리의 야간 공연이 처음 시도되었다.²⁰⁾ 실제로 강릉단오제는 점차 외형이 커

17) 최 철(1972), 154쪽.

18) 구체적으로 강릉단오굿 행사가 강릉시에서 문화원으로 이관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정은주는 1974년에 강릉문화원이 맡기 시작했다고 썼다. 하지만 강릉문화원이 발간한 강릉단오제 백서에 의하면 연도별 행사내용이 1973년부터 시작된다. 이것으로 보아 강릉문화원으로의 이관은 적어도 1971년에서 1973년 사이인 것으로 짐작된다. 강릉문화원(편), 『강릉단오제백서』 (강릉문화원), 239쪽.

19) 한양명(1999), 105쪽.

20) 정은주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선택된 강릉 단오 행사의 성격을 첫째,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둘째 강릉 고유의 것임을 강조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셋째 행사를 크고 화려하게 하여 선전, 관객을 유도하기 위한 것, 넷째 향토축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정은주(1993),

지면서 강릉다운 것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한편 체육행사, 예술행사, 경축행사들을 함께 하여 다른 지역의 향토축제와 균형을 맞춰왔다. 기존의 강릉 단오제를 형성해온 기반인 종교의식, 세시풍속, 그리고 난장을 중심으로 한 놀이 판동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소위 공동체의식을 연마하는 각종 행사들이 끼어든 것이다. 기왕의 씨름이나 그네, 농악외에 마을대항으로 치뤄지는 각종 체육행사는 특히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한 것들이다. 그외 강릉단오제는 사라져가는 강릉과 영동지역의 민속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통로로써 인식되어 그에 부응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연회, 공연되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강릉단오제의 정책입안의 방향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소위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이에 맞추어 상당부분 내용이 개편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변화는 외부로부터 왔다. 엄격히 말한다면 중앙에 있는 관에 의해 야기된 변화라고 하겠다. 한국관광공사는 19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450만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릉단오제는 외국인에게 보여줄 10대 축제의 하나로 정해졌고, 93년 강릉단오제 행사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강구되었던 것이다. 대대적인 중앙의 후원에 힘입어 단오장터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해마다 비만 오면 진흙바닥으로 변하던 단오장의 길은 깨끗이 포장되었다. 모든 행사장을 스탠드와 평행되게 배치함으로써 쉽게 구경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야간공연을 위해 상설 야외무대도 설치했다. 중앙에 상징적이 될 만큼 커다란 그네터가 마련되었고 굿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낮은 층계객석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기반시설 외에 강릉문화원은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강릉단오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행사내용을 다듬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운영위원회가 강릉단오제를 세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은 첫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의 강화였다. 강릉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국사서낭신위를 가설굿당으로 모셔가는 행차는 그동안 중학생들이 등불을 들고 행진해왔었다. 하지만 이 해부터 국회의원, 시장등 지역대표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행렬이 등을 들고 단오장으로 가게 했다.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단오등은 무당의 축원을 받은 뒤 남대천에 띄웠는데 이 행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또한 도시축제라는 점을 감

안하여 야간공연을 대폭 늘렸다. 대관령푸너리의 공연이 계속되었고 사물놀이, 국악, 연극 등이 공연되었다. 사물놀이는 그후 경연의 형식을 띠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 강릉단오굿의 국제관광 상품화 전략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팸플렛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이상 1993년의 변화를 요약해본다면, 첫째 기간시설의 보수 및 확충인데 공연장은 주로 관람하기 편안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종교적인 심성에 기대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만든 것이다. 셋째 도시 축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밤에 나와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축제로 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환으로 외국어 팸플렛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어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강릉단오제가 외부에서 온 충격을 탄력 있게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신앙심에 바탕을 둔 영신행렬을 제외하고는 참여보다는 관람위주로 단오장이 정비되고 프로그램이 정비된 것은 무시 못할 변화이다. 또한 세계의 축제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외국 관광객에게 매력 있는 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 해부터이다.

1994년의 특기할 사항은 강릉사투리 발표대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 외 강릉문화방송 주최로 단오미인선발대회가 열렸지만 2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단오굿의 전통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한 탓으로 보여진다. 1995년에는 지정문화재 행사중에 강문진포배기제가 포함되어 공간의 확대를 꾀하였다.

1996년에 생긴 중요한 변화는 외부 민속연회의 초청공연이다. 평택농악과 하회별신굿으로 시작하여, 97년에는 이리농악,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되었다. 그리고 이 해에 강릉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형주시 기예단과 태국 민속춤도 초청되어 외국 민속연회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1999년 강릉단오제의 행사는 지정문화재 행사, 외부 초청공연 3개 분야, 민속 행사, 경축행사, 야간공연, 예술행사, 체육대회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특기할 사항은 96년에 시작된 외부 초청공연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외부 초청공연은 3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7개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가 초청되어 공연되

었다. 고성오광대, 승무, 경기민요, 줄타기, 진도다시래기, 남해안 별신굿, 정선아라리등이 초청된 바 이 행사는 1999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외국공연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민속단이 초청되었는데 각각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에서 왔다. 그 외 평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제주도 민속예술단이 참가했다. 이로서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전통과 문화를 전승하는 통로에서 벗어나 전국의 민속을 접할 수 있는 백화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강릉시민들에게 외부의 문화를 볼거리로 소개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강릉단오제에만 오면 한국적인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시도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지난 30여 년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으면서 전승되어왔다. 그 변화는 첫째 민간주도의 성격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강릉문화원이 단오제를 담당하면서 민간주도의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로서 조선조 관주도의 읍치성황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면모를 달리하게 된 것이다.

둘째, 엄청난 양의 팽창과 그에 따른 축제성격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단오행사는 해마다 늘어나 1974년 12개에서 1999년에는 58개로 늘어났다. 단오굿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최측은 사람들이 축제에서 바라는 다양한 욕구를, 보여주는 상품을 많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가하는 축제’에서 ‘관람하는 축제’로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물론 새로 만들어진 행사중에서 사투리대회라든가 민요경창대회, 사물놀이대회처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투리대회는 점차 사라지는 생활언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선택된 행사라고 본다. 하지만 1993년 이후 신설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구경거리로 채워졌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강릉시민 내부의 욕구라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호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그러한 의식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1999년 외부민속공연의 대거 초청은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단오굿이 강릉을 대표할 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행사로 자

리매김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전통이란 진행중인 재생산이다. 어떠한 전통도 반드시 과거로부터 전수되고 재발견된 중요한 요소를, 선택하고 재선택한 의도적 연속의 과정이기 때문이다.²¹⁾ 자연발생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강릉단오제 역시 전승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오늘날 강릉단오제는 조직되는 도시 축제이다. 기존 전승의 틀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몇몇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축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강릉단오제를 조직하느냐에 따라 행사의 성격은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단오제 행사는 1967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변화를 거듭해 왔다. 물론 행사는 참여자의 호응도에 따라 어느 정도 즉각적인 비판을 받는다. 그리하여 호응도가 높은 것은 계속 유지되고 반면 낮은 것은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측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자의 입장은 대개 지역사회안에서의 여론을 존중해왔다. 강릉, 또는 영동의 문화를 전승하는 통로로서 강릉단오제가 기여한다는 의식아래 종교적 전승을 기반으로 하되 민속놀이와 민속연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조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들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앙의 정책이 훨씬 비중 있게 반영되고 있다. 소위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서의 강릉단오제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시책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이 또한 조선조 읍치성황제의 전통을 전승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중앙의 정책을 따르되 실제로는 지역민의 긍지를 높이고 그들의 문화적 욕구와 정서를 충족시켜온 강릉단오제의 전통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용, 지속되어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21) 레이몬드 윌리엄스(1984), 『문화사회학』, 설준규, 송승철(역)(서울:까치), 194쪽.

3. 강릉단오제의 위상 및 특성

1) 강릉단오제의 위상

강릉 단오제의 위상은 일단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전통 축제의 의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축제의 의의는 우선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대 문명에 의해 기계적이고 단순화된 일상에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가 있다는 점, 둘째, 현대 도시 사회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셋째, 전통 문화의 계승을 통해 지역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여 정신적 뿌리와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부수적으로 지역 전통 축제를 통해 독특한 지역 문화를 외부에 알리며,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장소 마케팅 및 지역내 관광 산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상에서의 변화를 통한 생활에서의 활력 추구
- 하나 되는 장을 통한 공동체 의식 부여
- 전통 문화의 계승을 통한 지역정체성 유지 및 개발
- 지역 문화 홍보를 통한 장소 마케팅 역할

(1) 일상에서의 변화를 통한 생활에서의 활력 추구

현재 서구의 각 공업 및 산업도시에서 각종 카니발등이 자치 단체의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큰 움직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일상에서의 변화를 통한 생활에서의 활력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주로 관광산업과는 별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 1년에 한번 난장을 펼쳐 시민들의 즐거움과 활력을 북돋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쾰른, 스위스 바젤, 프랑스 덩케르크 등의 상·공업 도시에서의 카니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대부분 축제 기간동안에는 거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춤·노래·음주 등과 행진, 무도회 등으로 온 시내의 거리 경관을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축제를 통해 얻어지는 카

타르시스 효과와 즐거움은 각종 소음, 쓰레기 및 치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더욱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브라질 리오의 카니발도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 단오제 역시 단오라는 형식이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지루한 일상을 절기를 통하여 끊어주고 변화를 줌으로써 전통 사회에서 활력을 주었던 바, 이러한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도 역시 유용한 아니 더욱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하나되는 장을 통한 공동체 의식 부여

동서양을 망라하고, 축제가 고대 및 전통사회에서 하나되는 기회로서 이용되었다는 점은 이미 모든 이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능은 개인주의 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과거의 강압적인 공동체 의식 부여가 아닌 전통적인 유희에 의한 은유적인 행위인 축제로서의 공동체의식 부여는, 놀이가 주는 즐거움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등 국가 대항 행사에서 보여지듯이 단시간내에 하나라는 의식을 나눌 수 있게 한다.

특히 강릉 단오제와 같은 일제시대도 끊이지 않고 하나되어 온 행사는 모두가 긍정하며 무리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지역내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나아가 지역생활에 대한 자부심마저 고취시켜 준다.

(3) 전통 문화의 계승을 통한 지역성 유지 및 개발

현대 사회의 큰 변화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역주의의 융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과거 중앙집권 체제의 우수성이 비판되면서 다양성에 의한 지역주의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세계 여러 곳에서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의가 정치색이나 지역 이기주의라는 단점으로 나타나고도 있는데, 지역 문화의 차별화 운동은 이와는 달리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지방색과는 달리 지역 문화 운동은 다양한 문화의 배양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국가 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고, 서구에서도 지역주의의

장점은 문화운동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인식되어 있다. 특히 전통 문화 분야는 중앙체제의 문화운동보다 더욱 뿌리 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단위에서의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중세의 분리된 독일이 낭만주의라는 문화운동으로 통일의 개념을 발전시켰듯이 이러한 문화 운동은 지역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전통 축제는 가장 일시적이면서도 강력한 지역 전통 문화 운동을 이끌 수 있다. 강릉의 단오제 역시 지역의 자랑스런 문화 전통을 축제를 통하여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나아가 문화국가를 이루는데도 이바지하리라 본다.

(4) 지역 문화 홍보를 통한 장소 마케팅 역할

지역의 홍보 및 나아가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장소 마케팅 혹은 도시 마케팅이 필요하다. 장소마케팅 혹은 도시마케팅은 지역이 매력적인 장소로서 홍보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 지역을 가장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더불어 다양하고 활발한 지역의 문화 유산이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의 각 도시에서 고유의 문화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각종 화려한 축제를 개발하고 인터넷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새로이 개발된 페스티벌이나 신종 축제들은 작위적이고 모양새만 화려한 겉보기식의 축제로 되기 일쑤이다.

반면, 강릉 단오제의 경우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자랑스런 문화 전통이 축제이며 강릉 특유의 문화 유산과 결합하여 문화적인 측면에서 확고한 위상을 점하고 있어 매력적인 강릉의 장소 마케팅 요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해 관광권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도 가능케 하는 지역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가 있다.

2) 강릉단오제의 특성

(1) 고대 축제의 전통 계승

강릉 단오제는 과거 무천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축제이다. 하늘에 제사지내면서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주야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았다는 부족국가 시대의 축제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전승된 것이다.²²⁾ 강릉단오제는 풍농을 기원하는 축제이다. 신을 잘 모시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곡식에 피해를 주는 등 풍수의 천재지변을 준다고 믿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온다. 이처럼 신의 도움으로 자연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신이 함께 놀고 기뻐하는 축제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강릉단오제다.

(2) 공동체의식 연마

전통축제의 맥을 잇고 있는 강릉단오제는 국사성황신을 중심으로 공동체의식을 연마하는 축제이다. 원래 강릉단오제에서 모시는 신은 허균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 산신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즉 자연신앙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 강릉단오제는 전국에서 행해진 읍치성황제의 하나가 되었다. 읍치성황제는 국가가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이속들이 주관하던 행사였다. 산신이 성황신으로 성격이 변한 것은 이런 성격에 연유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읍치성황제와 달리 강릉단오제는 어느 시기인가부터 국사성황제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신라말의 승려 범일국사라는 실존인물이 인격신으로 등장하였다. 강릉 학산출신인 범일은 국사초빙을 받았던 인물이기에 죽은 뒤 후대에 대관령 국사서낭으로 좌정했다는 것이다. 국사여서낭으로 믿는 정씨여인 또한 강릉출신이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지역 출신의 인물을 성황신으로 모시

22) 한양명은 고대축제의 공통점으로, ‘첫째, 생업과 관련된 특정한 시기에 연례적으로 축제를 베풀었다. 둘째, 지연공동체가 섬기는 신에 대한 제사가 곧 축제였다. 셋째, 축제의 기간은 수일동안이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넷째, 죄수까지도 석방하여 참여시킬 정도로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었다. 다섯째, 풍부한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섯째,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채로운 춤과 노래가, 주체적 참여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타악을 위주로 하는 반주음악이 따랐다’ 등을 들었다. 한양명(1999), “축제전통의 수용과 변용”, (실천민속학회)(편) 『민속문화의 수용과 변용』 (서울: 집문당), 94쪽.

기 때문에 중앙의 이념을 전달했던 다른 읍치성황제와는 달리 자신들의 공동체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출신의 인격신을 중심으로 행해진 강릉단오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공동체의식 연마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3) 광역성

오늘날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의 대부분은 시나 군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영산 줄다리기의 경우 영산읍의 주민들이 모여 축제를 치르고 있고, 은산별신굿 역시 은산면민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강릉단오제는 대관령의 국사성황신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훨씬 광범위하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강릉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훨씬 많아서 삼척, 울진, 강릉, 양양, 평창, 정선의 소위 영동6군을 아우르는 행사인 것이다. 이들은 강릉시민들처럼 구체적인 행사 조직의 임원이 되거나 수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관광객도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이들 역시 강릉단오제를 자신들과 무관한 행사가 아니라 가능하면 참여해야하는 종교적 행사이자 놀이마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릉단오제는 강릉을 벗어나 영동지역의 축제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오히려 강릉만의 행사로 위축되는 감이 있다.

(4) 무속적 성격

모든 축제의 배경에는 신앙이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축제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강릉단오제는 무속신앙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그 역사가 상당히 긴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단오제는 조선조에도 무격들이 주도하였고 이런 성격은 봉안제의 축문에도 전도무격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축문은 유교식 의례에서 읽는 것인데 거기에서조차 무격이 앞을 선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강릉단오제가 유난히 무속적 성향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금도 신주빚기에서부터 신목을 베어 영신하고 남대천에서 닻새동안 단오제 행사가 계속되는 내내 무당굿이 빠지지 않는다. 또한 유교식 조전제는 아침에 한시간 이내에 끝나지만 무당굿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져 실질적 종교의례의 면모를 보여준다. 관아가 주관하던 행사였기

에 유교와 무속이 공존하고 있으나 그 신앙적 뿌리는 무속에 있다는 것이 강릉 단오제의 특징이라 하겠다.

(5) 세시풍속적 성격

강릉단오제는 단오를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세시명절과 무관할 수 없다. 그래서 단오때 하는 씨름이나 그네놀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단오는 궁중에서 임금이 단오선을 하사하고 창포에 머리를 감는등 상하에서 모두 중시되던 명절이다. 하지만 추석이 이남지역의 명절인데 반해 단오는 특히 이북에서 중요한 명절이었다. 단오가 되면 씨름이나 그네같은 민속놀이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 탈놀음을 벌이고 난장벌림을 했었다. 하지만 추석이 전국적으로 명절로 자리잡고 공휴일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오는 잊혀지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현재 거의 유일한 단오명절인 동시에 집단적인 민속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6) 문화전승의 장

현대에 와서 강릉단오제는 문화전승의 통로이자 전통문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를 통해 탈놀음, 농악, 민요와 같은 무형문화재가 모두 공연된다. 이 정기적인 공연을 위해 전승자들은 실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관노가면극의 경우 지금은 무형문화재의 공식적인 전승마을인 유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관동대학교, 강릉대학교, 주부모임인 임영회,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체에서 전승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강릉단오제 마당을 통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씨름이나 그네, 투호같은 놀이체험도 단오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동시에 교육하는 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7) 대표적 문화자원

강릉단오제는 강릉이 자랑할만하고 또 부가가치가 막대한 문화자원이다. 강릉 단오제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오랜 역사와 포용력을 갖춘 문화자원이다. 강릉단오제는 전통적인 축제이면서 동시에 어떤 첨단문화현상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감싸안고 함께 갈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릉단오제는 강릉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세계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즉 강릉단오제는 강릉사람이 외부에 대해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서 축제의 경험을 통해 강릉을 알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릉단오제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축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세시명절으로는 설, 추석, 그리고 단오를 들 수 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전국에서 귀향전쟁이 벌어진다. 모두 떠났던 고향을 찾아가고 온 집안이 하나가 되는 명절인 것이다. 그에 반하여 북쪽 지방의 명절이던 단오는 잊혀지고 있다. 지금 단오를 제대로 명절로 지내는 곳은 영동지역뿐이다. 영동에서는 지금도 차례를 모시기 위해 귀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집단적으로 축제를 벌이는데 이는 추석이나 설에도 볼 수 없는 행사인 것이다.

(8) 유구한 역사성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축제중 하나이다. 강릉단오제는 제 몇 회라는 말이 아예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옛법 버리지 말고 새법 내지 말랬다’고 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오늘도 축제마당을 벌이는 것 뿐이다. 조선조에는 그 성격이 관에 의해 바뀌기도 하고 일제시대에는 외부의 압력으로 전승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지만, 민중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고 충족시키는 축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 남았다.

전통적인 축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전쟁, 새마을 운동을 겪으면서 전승이 끊긴 것이 많다. 그렇지만 강릉단오제는 명맥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더욱 활발하여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내용 또한 다양해져서 현대 도시축제로 성격을 변화시켜왔다. 즉 일제시대에는 제사와 무당굿 같은 종교의식과 그네, 씨름 같은 단오 세시 민속놀이로 구성된 마당이었다. 그러나 1967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내용이 다양해진 것이다. 즉 지정문화재행사, 민속행사, 경축행사로 나뉘어 행사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중 문화재분과에서는 그동안 전승이 중단되었던 관노가면극이 부활되었다. 또한 민속분과에는 강릉단오제와 상관없이 지정된 강릉농악이나 민요등이 전승의 통로로 단오장에서 정기공연을 갖게

되었다. 경축행사는 공동체의식 연마에 도움이 되는 체육행사를 비롯하여 궁도, 사진전등 다채로운 내용등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비록 강릉단오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남은 축제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